

“원수의 행악에 대응하는 자세”

■ 이종윤 원로목사

시편에 실려 있는 몇 편의 저주 시 중 그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시편 109편은 성경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시 중 하나이다. 원수에 대한 저주의 잔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배치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원수로 하여금 단명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어 힘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신세가 되게 해 달라’고 빌고 있다.(8-10)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눅 6:27-28)

구약에서 경건은 의분과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저주의 시를 쓴 다윗의 원수는 사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원수라는 해석이 있다. 전술한 시인의 간청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 선언이라 한다. 따라서 저주는 개인감정이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윗은 설욕과 판단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다.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는 자비로,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아니하리니’(삼상 24:10)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롬 12:19)라는 말씀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만 달란트 빚진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 일에 실패자가 되면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그들에게 형벌이 있다. 악행 한 자는 상이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가증되고 감상적인 세대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악한 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시대에 아직 우리는 살고 있지만 본사에서 기술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 대적한 악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 되실 때 그들은 최후 심판서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신중하게 다루시고 계시며,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들이 은혜를 받도록 강권하시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본시는 일깨워 주고 있다. 원수들의 행악은 시인으로서의 감내기가 어려웠다. 근거도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조작하여 유포하므로 중상모략하는가 하면, 이유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미워하여 혈통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었다. 이런 행악 자에 대하여 성도는 미워하기 쉽고 저주하기 쉬우려만, 시인은 ‘기도할 뿐이다’(4)라 한다. 원수는 험담이나 중상키 위한 유언비어로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말할 뿐이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7) 하나님의 섭리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이가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대적자의 대적자가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7) 법정의 피고인 옆에는 변호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인이 있을 뿐 아니라 사탄이 서서 그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오히려 대적한다. 악인은 ‘아버지로부터 삼사대까지 죄를 갚겠다’(출 20:5-6, 눅 19:41) 그러므로 죄를 대수롭게 여기는 자, 회개치 않는 자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명성에 상처를 주고 공격한 원수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더 큰 관심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악인은 그들의 입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방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악인의 오른쪽엔 사탄이 서 있으나 공핍한 자의 오른쪽엔 하나님이 계시어 보호, 구원해 주시고, 선악 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원수의 저주를 증가할 주의 은복을 믿고 원수의 도전을 받는 것보다 성도답게 나는 대응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자.

-한국장로신문 2020년 10월 28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오늘 주일예배와 찬양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더욱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서울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718_sermon.jpg

교회학교 예배와 새벽기도회도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요 2부 예배만 수요 1부 예배 영상이 녹화방송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선 교 사 전광재(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벨라루스),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남혁·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전임목사 조동수 합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seoulchurch.or.kr/

“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

■ **눅 5:11**
 모든 신앙 여정의 출발점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발견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 됨의 발견이 구원으로 향하는 영적 순례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케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첫 단계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자기 발견과 고백입니다. 본은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첫 만남의 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치절한 죄인 됨의 발견과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영적 순례는 시작되었고, 이후로 가장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 역사를 주도해 가는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세련된 매너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비올처럼 학문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으며 거칠고 투박하며 단순하고 평범한 시골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날부터 거룩한 순례의 길을 평생 지속하며 초대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1. 예수님을 만나다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는 어느 날 우연하게 청년 선지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 각 갈릴리 호숫가에서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배 두 척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파스칼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의 순종은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한 후로 베드로에게 미세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곧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고기잡이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순간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경이로움과 진실한 자기 고백을 통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매우 선명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 죄인에서 제자로
 ‘나는 죄인입니다’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10절)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실수와 변절, 그리고 영적 부딪침을 거치면서 성장해갔습니다. 주님을 만나 동행했던 3년 동안 베드로가 한 중요한 고백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며,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라는 신앙고백이고 세 번째는 세 번이나 반복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요 21:15)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인식이고 세 번째는 자기 사명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과 만남이 깊어질수록 신앙도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도 한층 성숙해져서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순간 그 분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점점 성숙해간 것처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무르익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더해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3.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11절)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고기 잡는 것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 가족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렇게 애써 잡았던 물고기도 뒤로하고 예수님 한 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인식할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 한 분을 버리게 발견하면 세상 모든 것을 버쳐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배설물처럼 여기던 것들을 세상에 돌도 없는 보배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끌어안고 지키고 사느라 인생의 모든 값진 순간과 에너지들을 허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다. 하나님께 필요할 것들도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머쥔 어부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그 곳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 자기 사명이려 주님 따르기를 거부했다면 그에게 인생의 빛은 사라졌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명예와 지도력을 갖게 되었고, 삶의 긍지와 행복감을 느끼며 인류의 스승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움켜쥐거나 버쳐야 할 것들을 내 것처럼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논리로 내려놓고 포기하면 미래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 논리에 미혹당하여 움켜쥐어야 미래가 안전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의심 없이 주님 따르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전재홍 목사	양춘경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62:5-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46(시 104)...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83(172)...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눅 5:1-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36(493)...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95:1-2 인 도 자
 찬 송 93(93) 다 합 께
 기 도 백도환 집사
 성 경 수 11:16-2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 설 교 자
 * 찬 송 358(400)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 부 이영옥 권사
 성 경 수 14:6-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내가 오늘 팔십오세로되”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전재홍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새가족 등록**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층 안내데스크에서 예배 전, 후로 새가족부에서 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 결 혼
- 안충현 군(9교구 안재선 집사, 문수자 권사의 장남) 최인애 양(9교구 최명남 집사, 김지은 권사의 장녀) / 7월 24일(토) 오후 1시30분 백주년기념관웨딩홀 네오트로 1층 그레이스홀(02-2646-5115) / 1호선 종로5가역 2번 출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방역지침 4단계에 따른 예배 안내 (7.12.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비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비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비대면 실시간 중계
- 따라서 수요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비대면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69명	519명	2,088명	561명	2,566명

🌳 자기 절제의 인격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시간을 절약해 주는 온갖 수단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느 때보다 더 바빠졌고 생각은 조급해져 가고 있다. 이 같은 세상을 헤쳐 나가려니 모든 것이 인스턴트식이 되어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참되게 사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인지 생각할 겨를도, 의지도 결여된 세대에 살고 있다.

무엇 때문에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전보다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끝없는 소유욕, 향락욕, 권력욕, 명예욕을 제어하지 않고는 새로운 가치를 좇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훌륭한 인격의 척도는 얼마나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비례한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